

新羅 善德女王的 王位繼承에 대한 論議

金昌謙*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선덕여왕의 즉위 검토 |
| 2. 선덕여왕의 가계 | 4. 맺음말 |

1. 머리말

신라시대에는 특이하게 여왕이 존재하였다. 후대인들은 이런 특별한 현상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여왕이 왕위를 계승한 배경과 이유, 또 그 존재에 대한 여러 의견과 평가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즉위한 제27대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거론된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한 이해는 크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중고기 신라 사회가 모계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정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당시 신라가 부계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왕의 즉위는 일부의 반대를 받았을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¹⁾

전자는 선덕여왕의 즉위는 직계에 의한 합법적인 왕위계승이며,²⁾ 이것

*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장

1) 정용숙, 『신라 선덕왕대의 정국동향과 비담의 난』,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1994, 237쪽.

2) 이종욱, 『신라 상대 왕위계승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은 아들이 없었던 진평왕이 강력한 의지로써 장녀 德曼을 왕위계승자로 내정하여 여성으로 지닌 왕권에 대한 근본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선덕여왕은 국왕의 위엄으로 국정을 수행했다는 주장이다.³⁾

반면에 후자는 선덕여왕은 國人에 의해 옹립됨으로써 즉위와 동시에 국정 전반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귀족들에게 이임했고, 이러한 왕권과 귀족세력간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선덕여왕은 실권이 없는 왕으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만을 가진 존재였고, 大臣 乙祭가 정무를 총괄하여 정치는 귀족에 의해 좌우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⁴⁾

에둘러 말하자면 선덕여왕의 즉위를 혈연에 의한 정상적인 繼位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요인이 보다 더 결정적으로 작용한 비정상적 방법인 國人에 의한 推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신라의 왕위계승에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는 친족관계, 또 이와 함께 매우 밀접하게 작용하는 골품적 요건, 그리고 당시 정치적 요인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선덕여왕의 경우이다.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하여 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A-① 善德王은 이름이 덕만이고 진평왕의 맏딸이며, … (진평)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웠다(王薨無子 國人立 德曼)(『삼국사기』 권5, 선덕왕 즉위조).
- ② 제27 선덕여왕 : 아버지는 진평왕이며 … 성골 남자가 없으므로 여왕을 세웠다(聖骨男盡故女王立)(『삼국유사』 권1, 왕력).
- ③ (貞觀 5년) 이 해에 진평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無子) 딸 善德을 세워 왕을 삼고 大臣 乙祭가 권력을 잡았다(『신당서』 권220, 신라전).

3) 이정숙, 「진평왕 말기의 정국과 선덕왕의 즉위」, 『백산학보』 52, 1999 :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혜안, 2012.

4) 김영하, 「신라 중고기의 정치과정시론」, 『태동고전연구』 4, 1988 ;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총』 20, 1993 ; 주보돈, 「비담의 난과 선덕왕대 정치운영」,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1994 ; 정용숙, 앞의 논문, 1994.

선덕여왕이 즉위한 이유를 인용문 A-①과 ③에서 보듯이 진평왕의 아들이 없어서 딸이라는 혈연 요건과, 더불어 A-①에서 정치적으로 나라 사람이 세웠다는 방법을 언급하면서, 또 A-②에는 성골 남자가 다하고 없기에 선덕여왕이 즉위하였다고 하여 골품제의 요건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선덕여왕의 즉위는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신라 왕위계승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들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왕위계승자의 우선 필수조건인 혈연 요인을 전왕의 맏딸이라고 밝혀 놓고선, 한편으로는 다른 왕의 즉위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녀의 신분이 聖骨이라는 요소를 언급하여 골품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추대에 의한 왕위계승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國人이 세웠다는 사실을 적어놓았다. 이런 까닭에 선덕여왕의 즉위는 신라왕조뿐 아니라 아마 우리 역사상 왕위계승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사례라 하겠다.

그러면 선덕여왕이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즉위하였을까? 사실상 전왕에게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왕의 의지에 따라 생전에 이미 특정인물이 왕위계승자로 정해지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즉위자 스스로 自立하여 왕위를 차지하거나 또는 추대자들에 의하여 옹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선덕여왕의 경우는 전왕인 아버지 진평왕의 의지에 의해 생전에 왕위계승자로 결정되었을까? 아니면 선덕여왕 스스로 즉위하였거나, 또는 진평왕이 죽은 뒤에 지지자들에 의하여 추대되었을까?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즉위후 선덕여왕의 위상과 왕권의 성격을 보다 사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⁵⁾ 우선 선덕여왕의 혈연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가계에 대해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왕위계승의 또다른 요건인 골품제에서의 성골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어서 직접적인 왕위계승 절차랄까 방법이라고 할 국인이 세움, 즉 당시 왕위계승과 관련한 정치세력의 동향을 포함한 정치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5) 필자는 앞서 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김창겸,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와 왕위계승 연구』, 『신라사학보』 30, 2014, 99~102쪽).

그리하여 신라에서 처음으로 여왕이 등장하는 배경과 이유 및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신라 왕위계승과 중고기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를 알아보겠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상당히 활용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필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논지를 전개하겠다.

2. 선덕여왕의 가계

앞에서 언급한 인용문 A-①과 ②에 의하면 진평왕이 아들이 없고, A-②에 의하면 성골 남자가 다하고 없기에 선덕여왕이 즉위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선덕여왕이 즉위한 가장 큰 배경과 이유는 진평왕에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갖춘 아들이 없으며, 동시에 왕위계승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 중에는 성골 남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덕여왕의 부계 혈족을 중심으로 그녀의 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덕여왕의 친족을 직접 언급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B-①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德曼이며, 진평왕의 딸딸이다. 어머니는 金氏 摩耶夫人이다(『삼국사기』 권5, 선덕여왕 즉위조).
- ② 제27대 德曼(曼은 萬으로도 씀)의 諡號는 善德女大王, 姓은 金氏, 아버지는 眞平王이다(『삼국유사』 권1, 기이, 선덕왕지기삼사).
- ③ 제27 선덕여왕은 이름이 德蔓이며.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摩耶夫人 金氏이다. 성골 남자가 없으므로 여왕이 왕위에 올랐다. 왕의 배필은 陰葛文王이다. 仁平 甲午에 즉위하여 14년간 다스렸다(『삼국유사』 권1, 왕력).

인용문 B에 의하면 선덕여왕의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 김씨이며, 배필은 음갈문왕이다.⁶⁾

6) 『삼국유사』 권1, 王曆에는 ‘仁平 甲午에 즉위하여 14년을 다스렸다.’(인용문 B-③)고 하였고, 반면에 권1, 紀異 善德女王知幾三事에는 ‘貞觀 6년 壬寅(632)에 즉위하여 16년 다스렸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 하지만 후자가 옳다. 그것은 『삼국

그러면 선덕여왕의 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먼저 그녀의 아버지 진평왕에 대해 살펴보겠다.

- C-①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白淨이며, 진흥왕 太子 銅輪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金氏 萬呼(萬內라고도 함)夫人이며 葛文王 立宗의 딸이다. 왕비는 金氏 摩耶夫人이며 葛文王 福勝의 딸이다(『삼국사기』 권4, 진평왕즉위조).
- ② 제26 진평왕은 이름이 白淨이며, 아버지는 銅輪인데 東輪太子라 하고, 어머니는 立宗葛文王의 딸 萬呼인데 萬寧夫人이라고 한다. 선비 摩耶夫人 金氏는 이름이 福盼이고, 후비는 僧萬夫人 孫氏이다(『삼국유사』 권1, 왕력).
- ③ 왕의 母弟 伯飯을 真正葛文王에 봉하고, 國飯을 眞安葛文王에 봉했다(『삼국사기』 권4, 진평왕 원년 8월).

인용문 C에서 보면 진평왕의 아버지는 銅輪太子이고, 어머니는 立宗葛文王의 딸 萬呼(또는 萬內, 萬寧)夫人이다. 왕비는 둘인데, 先妃는 福勝葛文王의 딸인 摩耶夫人 金氏이고 後妃는 僧萬夫人 孫氏이다. 그리고 형제로는 眞正葛文王(伯飯)과 眞安葛文王(國飯)이 있었다.

이번에는 진평왕의 아버지, 즉 선덕여왕의 할아버지 동륜태자에 대해 살펴보자.

- D-① 王子 銅輪을 王太子로 봉하였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27년 2월).
- ② 3월 王太子 銅輪이 사망하였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33년).

인용문 D에서 보면 동륜은 진흥왕의 맏아들로서 566년(진흥왕 27) 2월에 왕태자로 책봉되었다. 이로써 신라에서 태자책봉이 제도로서 시행된 것이다.⁷⁾ 그러나 동륜은 572년(진흥왕 33) 아버지 진흥왕보다 먼저 죽었기에 실제 왕으로 즉위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동륜의 아우, 즉 진흥왕

사기』 권30, 연표에서 “貞觀6 壬辰에 진평왕이 죽고 德曼(선덕여왕)이 즉위”하였고, 또 “貞觀8 甲午(선덕여왕 3)에 ‘改元仁平’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7) 김창겸, 『신라시대 태자제도의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13, 1993, 158쪽.

의 둘째 아들 진지왕(舍輪)이 진홍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동륜은 진홍왕의 태자였다. 그러므로 동륜의 아버지, 즉 선덕여왕의 증조부는 진홍왕이다.

- E-① 진홍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多麥宗이고 혹은 深麥夫라고 하고 나이가 7세이며, 법흥왕의 아우 葛文王 立宗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夫人 金氏이며 法興王의 딸이고, 왕비는 朴氏 思道夫人이다. 왕이 어렸으므로 王太后가 섭정하였다(『삼국사기』 권4, 진홍왕 즉위조).
- ② 제24 진홍왕은 이름은 多麥宗 혹은 深麥宗이고, 성은 金氏이다. 아버지는 곧 법흥왕의 아우인 立宗葛文王이고, 어머니는 只召夫人 또는 息道夫人 朴氏이고 牟梁里 英史伯(英失角干 오기)의 딸이다(『삼국유사』 권1, 왕력).
- ③ 제24 진홍왕은 즉위시 나이가 15세라 太后가 攝政하였다. 태후는 곧 法興王의 딸이며 立宗葛文王의 비이다(『삼국유사』 권1, 기이 진홍왕).
- ④ 진홍왕은 곧 법흥왕의 조카이며, 비는 思刀夫人 朴氏인데 牟梁里 英失 角干의 딸이며, 역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삼국유사』 권3, 흥법 원종흥법염촉멸신).

진홍왕은 이름이 多麥宗(深麥夫, 深麥宗)이며, 아버지는 법흥왕의 아우 立宗葛文王이고,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인 只召夫人 金氏이며, 왕비는 思道夫人(息道夫人) 朴氏로 英失 角干의 딸이다.

이에서 보건대 진홍왕의 아버지 입종갈문왕은 법흥왕의 아우로서 형 법흥왕의 딸, 즉 자신의 조카녀 지소부인과 숙질간에 혼인하였다. 그런데 인용문 E-②에서, 진홍왕의 “어머니는 只召夫人 또는 息道夫人인데 성은 朴氏이고 牟梁里 英失角干의 딸이다.”고 한 기록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진홍왕의 어머니를 『삼국사기』에는 법흥왕의 딸 김씨라고 하였고, 『삼국유사』에는 영실 각간의 딸 박씨라고 하였다.⁹⁾ 하지만 인용문 E-④에서

8)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舍輪(혹은 金輪이라고도 한다)이며, 진홍왕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思道夫人이다. 왕비는 知道夫人이다. 太子가 일찍 죽었으므로 진지가 왕위에 올랐다”(『삼국사기』 권4, 진지왕 즉위조).

9) 이렇게 되면 진홍왕의 어머니는 김씨와 박씨 두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아

보듯이 진흥왕의 비는 思刀夫人 朴氏이고 그녀는 牟梁里 英失 角干의 딸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 왕력의 기술방법에 따라 수정하여 보안하면 “眞興王 ... 父卽法興王弟立宗葛文王 母只召夫人金氏 法興王之女 妃色刀夫人 一作息途夫人朴氏 牟梁里英失角干之女”라고 복원하겠다.¹⁰⁾ 결국 진흥왕의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인 지소태후 김씨이다.

그러면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은 누구인가?

F-① 지난 乙巳年(525, 법흥왕 12) 6월 18일 새벽에 沙喙部の 徙夫知葛文王과 妹와 於史鄒安郎 3인이 함께 놀러 온 이후 □년이 지나갔다. 매와 (갈문)왕을 생각하지만 매와 왕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丁(?)巳年(537, 법흥왕 24)에 (입종갈문)왕이 죽자 그 왕비인 只沒尸兮妃가 사랑을 스스로 생각하여, 己未年(539, 법흥왕 26) 7월 3일에 그 (입종갈문)왕과 妹와 함께 본 書石을 보러 계곡으로 왔다. 이때 함께 세 명이 왔는데, 另卽知太王妃 夫乞支妃와 徙夫知王子郎 深□夫知가 함께 왔다¹¹⁾(蔚州川前里刻石 乙未銘·己未銘).

버지가 법흥왕과 영실 각각 두 사람이 된다. 물론 전자도 진흥왕의 아버지 입종이 아내를 두 명 두었거나, 후자도 진흥왕 어머니의 남편이 두 명이었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왕력의 제25 진지왕조에서, “母英失角干之女息途夫人一作色刀夫人朴氏”라 하여 ‘息途’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여 진지왕의 어머니가 息途夫人一作色刀夫人朴氏이고 그녀의 아버지가 英失角干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삼국유사』 왕력의 제24 진흥왕조에서 진흥왕의 어머니를 ‘只召夫人一作息道夫人朴氏牟梁里英失伯□之女’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 두 기록을 조합하면 진흥왕의 어머니는 只召夫人이고, 진지왕의 어머니가 되는 진흥왕의 비는 息道夫人朴氏이다. 결국 진지왕의 어머니이며 진흥왕의 비인 息途夫人은 모랑부의 박씨이고 그녀의 아버지는 英失 角干이다.

10) 한편 문경현은 ‘妃息途夫人一作息道夫人’이라고 복원하였다(문경현, 『시왕설과 선덕여왕』, 『백산학보』 52, 1999).

11) “過去乙巳年六月十八日昧 沙喙部徙夫知葛文王妹於史鄒安郎三共遊來以後□年 八巳年過去妹王考 妹王過人丁巳年王過去其王妃只沒尸兮妃 愛自思己未年七月三日其王与妹共見書石 叱兒來谷此時共三來 另卽知太王妃夫乞支妃 徙夫知王子郎深□夫知共來.”(이에 대해서는 이희관, 『신라 상대 지증왕계의 왕위계승과 박씨왕비족』, 『동아연구』 20, 1990의 판독과 해석을 참조함). 한편 박남수는 여기서 ‘妹王’이란 표현에 대해 왕의 매가 죽으면 ‘妹王’으로 추봉하였으며, 신라 사회에서 왕녀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훗날 선덕여왕의 국왕 즉위를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았다(박남수, 『울주 천전리 서석명에 나타난 진흥왕의 왕위계승과 입종갈문왕』, 『한

- ② 甲辰年(524, 법흥왕 11) 正月 十五日 喙部 牟卽智寐錦王, 沙喙部 徙夫智葛文王, 本波部 □夫智干支, 岑喙部 旻智干支 … (蔚珍鳳坪新羅碑).

앞에서 든 인용문 E-①·②에서 보듯이, 입종갈문왕은 법흥왕의 아우로서, 법흥왕의 딸인 지소부인과 혼인하였고, 당시 작성된 금석문에는 徙夫智葛文王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특히 울진봉평신라비에 의하면 입종(사부지) 갈문왕은 甲辰年(524) 정월 15일 沙喙部 소속으로 법흥왕(牟卽智寐錦王) 등과 함께 所敎事를 내렸다. 더욱이 울주 川前里書石 명문의 내용을 보면 입종갈문왕은 只沒尸兮妃(只召夫人)와 혼인하였는데, 525년(법흥왕 12) 친전리 계곡을 방문하고 바위에 행차를 기념하는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인용문 F-①에 의하면, 입종갈문왕은 537년(법흥왕 24) 이전¹²⁾ 내지 539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¹³⁾ 법흥왕보다 앞서 사망한 듯하다.¹⁴⁾ 그리하여 아들 진흥왕은 539년 즉위하고 아버지 입종갈문왕을 추모하여 다시 그곳을 찾아 글씨를 새겼다.

한편 입종의 아버지인 법흥왕은 누구인가?

G-① 법흥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原宗(『冊府元龜』에는 성이 募이고 이름은 泰라고 함)이며, 智證王의 맏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延帝夫人이다. 그의 왕비는 朴氏이며 保刀夫人이다(『삼국사기』 권4, 법흥왕 즉위조).

- ② 제23 법흥왕은 이름이 原宗이고 성은 金氏이며(『冊府元龜』에는 성

국사연구』 141, 2008, 20쪽).

12) 이회관, 앞의 논문, 1990, 89쪽.

13) 이정숙, 앞의 책, 2012, 75쪽 주47.

14) 한편 박남수는 只召夫人(只沒尸兮妃)이 丁巳年(537)에 서거하고, 立宗(徙夫知)葛文王이 살아서 乙未年(539)에 형수 另卽知太王妃 夫乞支妃와 그의 아들 深麥夫知(진흥왕)를 데리고 書石谷을 다시 찾았으며, 진흥왕의 즉위는 입종갈문왕의 세력기반과 법흥왕비의 협조로 가능했으며, 또 진흥왕 즉위후에 섭정을 한 王太后는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아니라 법흥왕비 보도부인이라고 주장하였다(박남수, 앞의 논문, 2008). 그러나 입종갈문왕이 생존했다면 왜 친부인 그가 아니라 부계로 큰어머니이고 모계로 외할머니인 보도부인이 섭정을 해야만 했는지 등 좀더 납득할 만한 추가설명이 있어야 하겠다.

은 慕氏이고 이름은 秦이라 하였다), 아버지는 智訂이고 어머니는 迎帝夫人이다. ... 왕비는 巴刀夫人이다(『삼국유사』 권1, 왕력).

- ③ 乙卯年(535, 법흥왕 22) 8월 4일 聖法興大王 때 道人 比丘僧 安及以及 沙彌僧 首乃至, 居智伐村的 衆士 □人들이 보고 쓰다¹⁵⁾(蔚州川前里刻石 乙卯銘).

인용문 G-①과 ②에서 보듯이, 법흥왕은 이름이 원중이고, 아버지는 지증왕이고, 어머니는 延帝夫人이며, 왕비는 保刀夫人(巴刀夫人) 박씨이다.

법흥왕은 신라 불교 공인의 주인공이며, 그의 생애와 치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인용문 F-②에는 ‘牟卽智寐錦王’이라 하였고, F-①에는 ‘另卽知太王’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인용문 G-③에는 ‘聖法興大王’이라고 하였다.¹⁶⁾ 특히 ‘聖法興大王’은 표현은 불교적 성격과 더불어 골품제에서의 성골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법흥왕의 아버지는 지증왕이다.

H-① 智證麻立干이 왕위에 올랐다. 姓은 金氏이고, 이름은 智大路(혹 智度路, 또는 智哲老라 한다)이고, 奈勿王의 曾孫이며 習寶葛文王의 子이며 照知王의 再從弟이다. 어머니 金氏 鳥生夫人은 訥祗王의 딸이고, 妃는 朴氏 延帝夫人은 登欣 伊滄의 딸이다(『삼국사기』 권4, 지증왕 즉위조).

- ② 제22 智訂麻立干은 智哲老 또는 智道路王이라고 한다. 성은 김씨이고, 아버지는 눌지왕 아우 期寶葛文王이고, 어머니는 鳥生夫人인데 눌지왕의 딸이다. 왕비는 迎帝夫人인데 漢只 登許 혹은 □□角干의 딸이다(『삼국유사』 권1, 왕력).

- ③ 癸未年(503, 지증왕4) 9월 25일 沙喙의 至都盧 葛文王, 斯德智 阿干支, 子宿智 居伐干支와 喙의 尙夫智 壹干支, 只心智 居伐干支와 本彼の 頭腹智 干支와 斯彼の 暮斯智 干支, 이 7王 등이 함께 의논하여

15) “乙卯年八月四日 聖法興大王節 道人比丘僧安及以及沙彌 僧首乃至居智伐村衆士□人等見記”

16) 법흥왕은 『南史』 신라전, 『梁書』 신라전, 『冊府元龜』 등에는 ‘募秦’으로 기록되어 있다.

교시하였으니, 前世의 두 王의 교시로써 증거를 삼아 財物을 모두
절거리로 하여금 얻게 하라고 하셨다(영일냉수리신라비).

인용문 H에 의하면 지증왕의 아버지를 『삼국사기』에는 翫寶葛文王, 『삼국유사』에는 期寶葛文王이라고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지증왕의 아버지를 파악하는데 혼란이 있다.¹⁷⁾ 그러나 어느 기록을 보아도 지증왕의 아버지는 당시 신라 최고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麻立干이나 寐錦이 아니고 다만 葛文王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증왕의 어머니는 눌지왕의 딸인 오생부인이고, 왕비는 漢只部 등흔(또는 등허) 각각의 딸인 연제부인 박씨이다.

이에서 보듯이 지증왕의 아버지는 실제 직접 왕으로 재위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재위한 왕의 자식이 아닌 지증왕 역시 정상적으로 왕위계승권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전왕 소지마립간이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지증 자신이¹⁸⁾ 갈문왕의 지위에서 왕위에 올랐다.

한편 신라 내물왕계는 눌지왕계와 지증왕계로 분지화된다. 그러나 눌지왕계는 소지왕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대신에 지증왕의 즉위로 지증왕계가 새로운 왕통을 성립하였다. 또 지증왕계도 진흥왕 이후에는 장자인 동륜계와 차자인 사륜계(진지왕)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종족과 가계 중 선덕여왕은 지증왕계 내에서 동륜계에 속한다.¹⁹⁾

그러면 이번엔 선덕여왕의 모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선덕여왕의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다. 인용문 C-②에서 보듯이 진평왕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다. 그 중에서 先妃가 摩耶夫人인데 곧 선덕여왕의 어머니이다. 마야부인의 아버지는 福勝葛文王이다.²⁰⁾

17)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증의 아버지 습보가 나물의 증손이 되고, 습보(기보)가 눌지의 아우가 된다. 이러한 기록의 불일치로 인해서 연구자간에 지증왕의 선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18) “前王薨無子故繼位 時年六十四歲”(『삼국사기』 권14, 지증마립간 원년). 혹은 쿠데타를 통해 소지마립간을 유폐하고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설도 있다(정구복, 「영일 냉수리 신라비의 금석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3, 1989, 14~15쪽).

19) 그러므로 지증왕이 즉위하기 이전에는 신라 왕위계승 범주에 속하지 못하였던 지증왕의 선대에 해당하는 선덕여왕의 부계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겠다.

20) 이와 달리 『삼국유사』 왕력에는 마야부인 김씨의 이름(名)이 ‘福勝□’이라 하였

결국 [그림]에서 보듯이 지증왕이 즉위한 이후로는 왕위를 그의 후손들이 계승하였기에 이 왕통, 즉 선덕여왕을 포함한 이 가계를 이른바 ‘智證王系’이면서,²³⁾ 좁게는 진흥왕의 후손 중에서 ‘銅輪系’라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이전까지는 눌지마립간의 즉위를 시작으로 하여 지증왕을 거치면서 부자계승이 확립되고, 더구나 진흥왕대 태자 책봉제의 시행으로 남계계승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3. 선덕여왕의 즉위 검토

선학들은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하나는 『삼국유사』 왕력의 ‘성골남진’이라는 문구에 천착하여 성골남자가 없는 가운데 성골 신분을 가진 선덕여왕이 즉위함으로써 성골의 왕위계승을 존속시키는 비상조치의 일환이었다는 주장하였다. 다른 하나는 성골은 실재하지 않은 것이고 왕권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념이며, 선덕여왕은 신라 중고기 왕권강화 과정에서 아버지인 진평왕의 왕권강화로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선덕여왕의 즉위는 여왕 쪽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고 진지왕계와 진평왕계의 대립구도에서 정치세력간의 타협에 의해 여왕이 즉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²⁴⁾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신라의 왕위계승은 전왕과의 친족관계를 기본전제로 하면서 여기에 골품이라는 신분 조건과 당시 정치 상황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세가지 조건이 작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은 제26대 진평왕의 딸이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의 즉위는 혈연상으로는 정상적인 왕위계승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특이한 것은 앞선 시기의 왕위가 男系로 계승되었던 것과는 달리 딸, 즉 女系로 이

23) 지증왕계에 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 1990, 78쪽과 이기동, 「신라 내물왕계의 혈연의식」, 『역사학보』 53, 1972, 75~82쪽 참조.

24) 이에 대해서는 조범환, 앞의 책, 2000 ; 김선주,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2009 참조.

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신라 최초의 여성 국왕이 된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 관심 중에서도 우선은 어떻게 즉위하였는가? 즉 왕위계승 배경과 방법, 과정 등에 관한 것이다.

선덕여왕의 즉위를 혹 女系的이니 母系的 繼承으로 보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直系卑屬의 長子女에게 지위를 계승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選系的 유포인 남녀의 동등한 대우가 이곳에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²⁵⁾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신라 중고기에는 왕의 자녀는 딸도 한세대에 한하여 부계의 성원권을 가져서 성골신분으로 왕위계승권이 있어 선덕여왕이 즉위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²⁶⁾ 신라는 마립간시대에 왕위의 부자계승이 실행되면서 장자계승이 일반 양상이었다.²⁷⁾ 그리고 왕위계승자는 왕의 아들이면서 정식 왕비의 소생이어야만 했다.

선덕여왕이 진평왕의 딸임에도 왕위를 계승한 이유는 『삼국사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진평왕이 죽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해서는 그녀의 아버지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는 것(王薨無子)부터 살펴야만 한다.

기록에서 신라시대 재위중인 왕에게 아들이 없다는 표현은 진짜 사내 아이가 없다는 것과 아들이 있기는 하나 왕위를 계승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부자계승이 확립된 후로는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적 원인 중에서 아들의 존재여부이다. 간혹 인간에게는 生物學的 또는 後天的 원인에 의하여 子孫이 단절되는 수가 있다. 신라시대에도 왕의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왕들은 아들을 얻기 위

25)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93쪽.

26) 이종욱, 「신라 중고시대의 성골」, 『진단학보』 50, 1980, 9쪽 ; 『신라의 역사』 1, 김영사, 2002, 310쪽.

27) 한편 이광규는 눌지마립간이 父系的 繼承을 확립하였고 長子系와 次子系의 갈등이 있는 뒤에 즉위한 진평왕을 계기로 長子直系繼承의 원리가 생기게 되었다고(이광규, 앞의 책, 1977, 134쪽) 하였으나, 그러나 장자직계계승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진흥왕대 태자책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왕비를 한 명 더 취하는 방법이었다. 진평왕에게도 先妃 摩耶夫人과는 달리 後妃 僧萬夫人 孫氏가 있었다는 기록에 의하면, 진평왕 역시 왕위계승 자격을 갖춘 아들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다시 왕비를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평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권5, 선덕왕 즉위조에 서 “王이 죽고 無子여서 國人이 德曼을 세웠다.”고 하였듯이, 그에겐 실제 아들이 없었다.²⁸⁾ 결국 선덕여왕 덕만의 즉위는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기에 딸임에도 재위중인 왕의 자식이라는 혈연적 요인에 의해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한편 신라 중고기에 왕위를 계승할 자격으로는 골품제에서 聖骨의 신분을 요건으로 하였다. 그런데 왕위의 부자계승제가 확립되고 태자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왕위계승의 원칙적 대상자는 왕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때 ‘성골남진’이란 표현은 진평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성골의 아들은 없고 딸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진평왕의 딸 덕만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말이 된다.²⁹⁾

사실상 진평왕의 딸인 선덕여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골품이 성골이라는 특수한 왕족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해 인류학 이론을 적용한 선행 연구 중에는 신라 왕위계승에서 여자도 한 세대에 한하여 왕위계승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런 이유로 진평왕에게 성골 아들이 없어 성골의 딸 덕만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라는 李鍾旭의 논증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덕왕의 즉위는 합법적이고, 진평왕의 장녀로서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상속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겠다.³⁰⁾

28) ‘無子’와 ‘無男子’란 표현은 말 그대로 아들이 없음을 의미한다(김창검,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유조』, 『백산학보』 56, 2001 :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148~156쪽).

29) 여기서 ‘聖骨男盡’을 흔히 성골의 자격을 가진 남자의 절멸로 이해하여 진평왕의 아우, 즉 선덕여왕의 숙부인 진정갈문왕과 진안갈문왕도 성골신분이지만 진평왕보다 먼저 죽고 없었다는 견해, 이와 달리 성골 남성이 멸절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성골신분으로 왕위계승의 자격을 갖춘 진평왕 직계의 남자가 끊겼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이정숙, 앞의 책, 2012, 197쪽). 하지만 어느 주장이건 왕위계승의 자격과 범주에 든 성골남자가 없다는 것에는 같이 한다.

30) 이종욱, 앞의 책, 1980, 155쪽.

하지만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은 骨品이라는 신분제에서 이른바 ‘聖骨男 盡’이 이유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명분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정치적 요인이 함께 크게 작용한 것이다.

왕위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최고 지위의 계승인지라 흔히들 하늘이 내린다는 의식과 표현이 있을 정도로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확보하기 위한 명분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더구나 즉위후에 선덕여왕은 국인들로부터 “聖祖皇姑”라고 불렸다고³¹⁾ 한다. 이것은 ‘성스러운 조상을 가진 황제 여자(어머니)’라는 뜻으로, 성스러운 조상이란 곧 聖骨의 조상, 혈통을 의미한다고 보겠다.³²⁾ 그러므로 선덕여왕에게는 성골 신분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명분상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른바 ‘성골남진’이란 표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고기에 성골신분이 무엇인가? 골품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양쪽이 왕족이면 성골이 되고 한 쪽이 왕족이 아니면 진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³³⁾ 또 이와 달리 李基東은 제24대 眞興王의 장남인 銅輪太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小家系(진평왕계)가 배타적으로 여타 왕실집단이 소유한 진골보다 더 상위의 신분계급인 성골을 주장해 만들어졌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³⁴⁾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白淨이라 하고, 왕비는 摩耶夫人, 아우를 白飯·國飯이라 하여 釋迦牟尼 가족의 이름을 본떠 불렀듯이, 동륜의 직계에 한정해 이른바 聖骨 관념을 내세워 王家 위상의 극대화를 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삼국사기』 권5, 진덕여왕 8년조에 국인들이 시조 혁거세에서 진덕여왕까지 28명 왕을 성골이라 한다는 기록, 또 『삼국유사』 권1, 왕력에 제23대 법흥왕에서 제28대 진덕여왕까지를 中古라 하고 성골이 왕위를 이었다는 기록에 대비하면 제23대 법흥왕, 제24대 진흥왕, 제25대 진지왕 등 3명 왕의 신분이 성골이 아닌 것이 되기에 서로 불일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李鍾旭은 매우 정연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살펴

31) “國人號聖祖皇姑”(『신당서』 권200 신라전 ; 『삼국사기』 권5, 선덕여왕 즉위조).

32) 한편 聖祖를 진평왕, 皇姑를 선덕왕으로 대입시켜 ‘강력한 통치력을 구사했던 위대한 진평왕의 딸 선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정숙, 앞의 책, 2012, 198~199쪽).

33) 이병도, 『고대 남당고』, 『서울대 논문집』, 1954.

34) 이기동, 앞의 논문, 1972 :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86~89쪽.

보면 다음과 같다. 법흥왕이 520년(법흥왕 7) 律令을 반포하면서 새로운 성골 宗族(집단)이 만들어졌으며, 왕과 그 형제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종족을 성골로 한다고 하였다. 즉 신라인들은 기본적으로 父系 종족을 유지하였는데, 신라의 성골 종족은 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왕의 죽은 아버지를 시조로 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계 종족이 성골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골은 왕과 그의 형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형제 공동가족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왕과 형제의 딸들로 출궁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³⁵⁾ 그러므로 왕위는 성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적 장치였고, 친족집단인 성골 종족은 왕을 배출하는 최고의 사회적 집단이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25대 진지왕이 폐위되고, 579년 진평왕(진지왕의 조카)이 즉위함으로써, 진평왕의 아버지 銅輪(진흥왕의 맏아들)을 시조로 하는 새로운 성골 종족 집단이 만들어져, 진평왕의 아우인 진정갈문왕, 진안갈문왕 및 그들의 자녀들(선덕·천명·진덕 등을 포함)이 성골이었다. 반면에 폐위된 진지왕과 그의 아들인 龍樹(龍春)는 성골에서 진골로 族降되었고, 또 용수와 진평왕의 딸 天明公主 사이에 태어난 아들 金春秋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진골 신분을 가졌다. 아울러 李鍾旭은 여자가 혼인하여 남편의 집으로 가면 부계성원권을 잃게 되는데, 진평왕의 딸 天明公主는 혼인으로 出宮하여 성골신분을 가진 부계성원권을 잃고 진골로 族降되어 혼인한 龍樹의 부계혈족집단으로 들어갔기에 왕위계승권을 상실하였으며, 그리하여 왕위계승의 정당성이 德曼公主(선덕여왕)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설명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 아직까지 지증왕계의 왕위계승, 즉 지증왕을 비롯하여 법흥왕에서 진평왕까지는 성골 종족의 남자를 왕으로 삼았다. 이미 왕위의 부자계승제가 확립되고 장자계승을 원칙으로,³⁶⁾ 더구나 태자제가 시행된 바 있어서 이것은 남계계승이 적용된 원칙이다. 그러므로 비록 왕의 다음 한 세대이면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 왕위

35) 이종욱, 앞의 논문, 1980 : 『신라골품제연구』, 일조각, 1999.

36)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22쪽 ; 이종욱, 앞의 책, 1980, 158쪽 ; 이광규, 앞의 책, 1977, 134쪽.

계승권을 가졌다고 해도, 종전까지 신라사에서 여성이 왕위에 오른 예가 없으므로 처음으로 여왕이 즉위하는 데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 요구되었다.³⁷⁾ 여기에서 성골남진은 여자인 선덕여왕의 즉위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절대적 명분으로 내세워지고,³⁸⁾ 특히 강조되었던 것이다. 결국 선덕여왕의 즉위는 중고기 지증왕계 왕들과 그녀의 아버지 진평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³⁹⁾ 고양된 王者意識의 관념화된 표징인 성골의식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예외적이고 특수한 왕위계승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선덕여왕을 ‘國人立’하였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은 계위가 아니라 사실은 진평왕의 장녀로 추대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⁰⁾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이 실현되기에는 성골 왕의 즉위라는 대의명분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위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 정치권력의 작용이다. 사실상 신라시대에 있어서 전왕의 ‘아들이 없는(無子)’ 경우에는 비상조치에 의하여 왕위가 계승되었다. 간혹 재위중인 왕의 아들이 아닌 父系親이 태자로 책봉되어 계승하기도 하고, 群臣·國人の 추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찬탈을 하였고, 유조를 내려 왕위계승자를 정해주시기도 하였다.

어쨌든 왕위는 최고 지위이므로 그 계승은 현재 재위중인 왕의 명령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진평왕 역시 말년에 이르러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왕위의 직계계승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딸인 선덕여왕에게 왕위를

37) 성골의식의 출현은 범흥왕대까지 소급이 가능하나 제도적 틀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을 진평왕대이며, 특히 장기간에 걸치는 진평왕의 집권은 王者의 성골관념을 더욱 굳게 하였고, 이것이 곧 선덕여왕의 즉위를 가능케 한 중요한 명분으로 기능하였다(주보돈, 앞의 논문, 1994, 216~217쪽). 심지어는 성골을 진평왕이 직계 장녀를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창출된 작위적인 신분관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병곤, 『신라 중고기 말의 정치현황에 대한 비갈등론적 이해』, 『한국고대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483쪽).

38) 주보돈, 앞의 논문, 1994, 211쪽. 또 聖骨男盡을 내세워 선덕여왕의 즉위를 주장하고 추진한 세력은 비슷한 시기인 59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女主 推古(593~628)가 즉위한 사례가 하나의 유력한 명분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주보돈, 앞의 논문, 1994, 219쪽; 이정숙, 앞의 책, 2012, 200~203쪽).

39) 정용숙, 『신라의 여왕들』,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45쪽.

40) 신희식,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212쪽 ‘표’ 참조.

계승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뜻과 의도를 미리 밝힌 듯하다. 진평왕이 죽기 몇 달 전에 柒宿의 반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반란은 그 시점으로 보아 아마도 진평왕이 여자인 덕만을 왕위계승자로 결정한 것에⁴¹⁾ 반대하여 일으킨 것으로 추측된다. 진평왕이 왕위계승자를 선덕여왕으로 정하자 당시 귀족들과 정치세력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는 이것을 따르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졌을 것이다. 반대세력의 대표자는 柒宿과 石品이었으며, 이들은 의사 표시를 행동화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⁴²⁾

하지만 이 사건은 도리어 난을 진압한 선덕여왕을 지지하는 세력 — 龍春과 협조자들 — 이른바 ‘國人’에게 그녀의 왕위계승을 확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⁴³⁾ 이 사건은 반대세력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할 수 있는 구실이 되었고 제거할 명분이 되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선덕여왕이 여성임에도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과 중도적 입장에서 대세를 관망하던 세력들 간에 이루어진 모종의 정치적 타협이라고 하겠다.

선덕여왕의 대표적인 지지세력으로는 乙祭와 飲葛文王 그리고 龍春과 金舒玄·金庾信 부자를 들 수 있다.

인용문 A-③에서 보듯이, 大臣 乙祭는 선덕여왕 즉위후에 권력을 잡았다고 하였으며, 또 『삼국사기』에서는 “대신 乙祭로 하여금 나라의 정사를

41) 이종욱, 앞의 책, 1980, 182~183쪽 ; 김영하, 앞의 논문, 1988, 18쪽 ; 후보돈, 앞의 논문, 1994, 220쪽 ; 정용숙, 앞의 논문, 1994, 243쪽. 더구나 진평왕 43년에 장녀 덕만(선덕)을 왕위계승권자로 정했다는 견해가 있다(이정숙, 앞의 논문, 1999, 218쪽 ; 앞의 책, 2012, 189쪽).

42) 선덕은 이미 진평왕 말년에 왕위계승자로 결정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귀족들 간에 문제가 야기되어 칠숙의 모반이 일어난 것이다(후보돈, 앞의 논문, 1994, 211쪽).

43) 김창겸, 앞의 논문, 2014, 102쪽. 한편 이에 더하여 선덕여왕의 즉위에는 사상적인 면도 작용하였으며(강영경, 『신라 선덕왕의 지기삼사에 대한 일고찰』, 『원우논총』 8, 1990 ;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 76, 1992), 또 일본의 여왕 즉위 사례를 이용하였을 것(후보돈, 앞의 논문, 1994 ; 이정숙, 앞의 책, 2012 ; 조범환, 앞의 책, 책세상, 2000), 그리고 선덕여왕의 지적 능력이 즉위 명분으로 작용한(신종원, 『선덕여왕에 얽힌 소문의 진실』,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것이란 추측도 있다.

총괄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선덕여왕이 즉위하자마자 을제에게 국사를 총괄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여왕의 신뢰와 의존도는 대단히 지대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당시 귀족세력과 정치계에서 을제의 위상은 매우 높았으며, 그가 선덕여왕에게는 절대적인 후원자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을제가 선덕여왕의 즉위과정에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요 대가이며 예우인 것이다.

그리고 飲葛文王의 경우는 인용문 B-③에서 보듯이 선덕여왕의匹이라고 하였다.⁴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음갈문왕이 배필이 된 시점은 선덕여왕의 즉위후라고 하겠다. 만약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상 선덕여왕이 즉위 전에 음갈문왕과 혼인하였다면 혼인과 함께 갈문왕의 소속 部로 출궁되어⁴⁵⁾ 왕과는 소속을 달리하게 되어 왕위계승권을 상실하였고 실제 즉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에서 보건대 선덕여왕은 즉위전에는 정식 혼인하지 않아 진평왕의 부계종족에 속하여 왕위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실제로 즉위한 것이다. 그리고 즉위후에 음갈문왕과 혼인하였던 것이다.⁴⁶⁾

혹자는 『삼국사기』 권5, 선덕여왕 즉위조에 ‘진왕(진평왕) 때 唐에서 모

44) 음갈문왕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① 선덕여왕의 숙부에 해당하는 진평왕의 아우 伯飯(진정갈문왕)이다. ② 『동경잡기』와 『경주김씨족보』에는 金仁平이다. ③ 昌寧曹氏의 시조로 전하는 曹繼龍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1)은 飲을 飯의 誤記로 보고 이름에 飯자가 들어가는 白飯으로 유추한 것이고(武田幸男, 『新羅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1974, p.196), ②는 『삼국유사』 왕력의 ‘王之匹飲葛文王仁平甲午立治十四年’이란 기록에서 문장을 ‘飲葛文王(金仁平)’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③은 후대 편찬된 족보 자료에서 ‘眞平王女婿’란 표현을 건강부회하고 확대 해석한 것으로(丁仲煥, 『毗曇·廉宗亂의 原因考』, 『동아논총』 14, 1977, 20~24쪽), 모두가 억측에 불과할 뿐이다.

45) 울진봉평비(인용문 F-②)의 “喙部 牟卽智寐鎬王, 沙喙部 徙夫智葛文王”이란 기록에서 보듯이, 생전에 갈문왕 신분이면 왕의 아우라도 이주하여 그 소속을 달리하였다.

46) 음갈문왕과 선덕여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음갈문왕을 白飯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는 진평왕의 동생이라 성골 신분이고 또 일찍 선덕과 혼인하여 진평왕의 사위였기에 왕위계승권이 있었으나 음갈문왕이 죽어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여 선덕여왕이 즉위하였다는 주장이 있다(조범환, 앞의 책, 16~18쪽), 이와 달리 음갈문왕=金仁平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선덕여왕이 즉위후 혼인하여 임인년(선덕여왕 3)에 그가 갈문왕에 봉해졌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음갈문왕은 백반도 김인평도 아니기에 이들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란꽃을 그린 병풍을 보내왔고, 그림에 나비가 그려지지 않아 향기가 없음을 알았다’는 기록과 『삼국유사』 권1, 기이 선덕왕지기삼사조에서 ‘當時(선덕여왕대) 여러 신라가 왕에게 아뢰기를’ 옥문곡 사건과 더불어 모란꽃 향기가 없음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묻자, 후자에 대해서 ‘꽃을 그리면서 나비가 없음에서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당나라 황제가 과인이 짝이 없음을 놀리는 것이다.’고 한 것에서 혼란을 일으켜, 선덕여왕이 즉위전(진평왕대)부터 즉위 후에도 줄곧 배필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⁴⁷⁾

『삼국사기』 선덕여왕본기를 보면, 당에서 병풍을 보내온 시기는 진평왕대인 덕만공주 시절의 일이라 하였고, 또 玉門谷 사건은 636년(선덕여왕 5) 5월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知機三事조에서 선덕여왕이 대답한 것은 이보다 뒤 시기의 일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당 황제가 선덕여왕이 배필이 없음을 희롱한 것은 그녀의 재위 후반기의 일이라 하겠다.⁴⁸⁾ 즉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의 기록은 두 가지 사실을 하나로 통합 서술하면서 혼란을 빚어놓은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선덕여왕은 『삼국유사』의 왕력의 기록대로 배필이 있었으나, 재위중 어느 시기에 먼저 죽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배필이 없는 과부로 혼자 지낸 듯하다.

결국 음갈문왕은 선덕여왕의 즉위를 지지하고 후원하여, 선덕여왕의 즉위후에 배필이 되었으며, 이에 합당한 대우로써 葛文王에 봉해졌을 것이다. 한편 신라시대 갈문왕은 家父長的 家族制度 밑에서 남성이 차지하였으며, 외국사신의 접견과 국내 귀족의 회합에 왕을 배석하는 존재로서, 무거운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며⁴⁹⁾ 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신라 지배세력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⁵⁰⁾ 한다. 아마 음갈문왕의 역할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덕여왕 즉위초에는 을제가 정무를 총괄하며 도우고, 한편 음갈문왕이 의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덕여

47) 김태식,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신라사학보』 30, 2014.

48) 이것은 어쩌면 643년(선덕여왕 12) 9월 신라 사신이 입당하여 결사구원을 요청하자 당 태종이 신라 여왕의 문제점을 거론한 무렵일 듯하다.

49) 이기백, 『신라시대의 갈문왕』, 『역사학보』 58, 1973 : 앞의 책, 1974, 18쪽.

50) 강영경, 『울주 천전리서석 명문을 통해 본 신라왕실의 초기불교정책』, 『한국암각화연구』 18, 2014, 8쪽.

왕을 도와 국정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선덕여왕에게서 후사를 얻지 못하고 음갈문왕이 먼저 죽었다고 보겠다.

한편 龍春은 잘 알듯이 진지왕의 아들로써 진평왕과 선덕여왕 때에 伊滄의 지위에 있으면서 왕실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용춘은 622년(진평왕 44) 왕궁의 업무를 관장하는 內省私臣으로 임명되어 3宮(大宮, 梁宮, 沙梁宮)을 모두 관장하였으며,⁵¹⁾ 또 629년(진평왕 51) 김용춘과 金舒玄은 大將軍으로서 부장군 金庚信과 함께 고구려의 娘臂城을 공격해 함락시켰다.⁵²⁾ 그리고 선덕여왕의 즉위 뒤인 635년(선덕여왕 4) 김용춘은 水品과 함께 왕명을 받들어 각 州縣을 돌며 백성들을 위로하였고,⁵³⁾ 특히 643년(선덕여왕 12)에는 선덕여왕의 왕권의 상징이라 할 황룡사9층탑의 건립을 주관하였다.⁵⁴⁾ 이처럼 龍春이 이 시기의 신라 왕실과 정치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계속 활동한 것은⁵⁵⁾ 진평왕에서 선덕여왕으로 왕위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핵심 인물이었음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선덕여왕은 김용춘의 아들인 김춘추와 김유신의 누이 文姬의 혼인을 주선하여 양가를 인척으로 결합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⁵⁶⁾ 이로써 김용춘·김춘추 부자와 김서현·김유신 부자는 선덕여왕의 핵심 후원세력이 되었고 그녀를 추대하여 즉위케 한 주도세력으로 역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의 즉위는 신라 왕위계승상에서 종전에 지켜온 부자 계승원칙을 준수하고자 재위중인 왕의 자식이라야만 하는 필수적 기본조건인 혈연요인에 더하여, 이제부터는 반드시 성골이라야 하는 골품제 규정을 새롭게 추가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한계를 정치적 지지자들에 의해 國人的 추대라는 절차를 거쳐 즉위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통해 합리화하였다.⁵⁷⁾

51) 『삼국사기』 권4, 진평왕 44년 2월.

52) 『삼국사기』 권4, 진평왕 51년 8월.

53) 『삼국사기』 권5, 선덕여왕 4년.

54) 『삼국유사』 권3, 塔像 皇龍寺九層塔.

55) 김덕원, 『김용춘의 생애와 활동』, 『명지사론』 11·12합집, 2000.

56) 『삼국유사』 권1, 기이1 太宗春秋公.

57) 김창겸, 앞의 논문, 2014, 102쪽.

결국 인용문 A의 구절들을 보면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은 성골부자계승을 준수하는 남계계승원칙이었음에도, 성골 남자가 다하자 國人의 추대를 통한 聖骨父子繼承原則의 변형으로 선덕여왕은 聖骨父女繼承을 하였다.

그리고 선덕여왕 역시 자식이 없어, 진덕여왕 역시 성골계승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김춘추와 김유신 등 정치세력의 지지를 받아 또다른 변형으로 여자계승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왕을 반대하는 毗曇 세력에 대하여 비록 여자이지만 진덕의 신분이 성골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그녀를 지지한 김춘추와 김유신 세력의 승리였다. 결국 이것은 김춘추와 김유신 세력의 정치적 승리에 의한 진덕여왕의 추대라고 하겠다.

4. 맺음말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써 맺음말을 대신 하겠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은 제26대 진평왕의 딸이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의 즉위는 혈연상으로는 정상적인 왕위계승이라 하겠다.

신라 중고기에는 비록 골품제 운용상 출가하지 않은 딸도 한 세대에 한하여 부계 종족 범위에 속하여 왕위의 계승권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이미 왕위는 부자계승원칙과 태자제에 의해 남자계승을 원칙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딸이라는 혈연적 요건을 가졌으나 여자라는 한계 때문에 그녀의 즉위에 대하여 반발도 있었다. 그리하여 아버지 진평왕은 성골이라는 신분적 자격을 왕위계승의 절대적 명분으로 강조하였고, 더욱이 지지세력들의 추대를 통하여 선덕여왕이 즉위하였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은 진평왕의 딸이라는 혈연적인 필수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성골이라는 골품제 신분을 충분조건으로 함께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국인의 추대를 선택적 실행조건으로 하여 즉위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 왕으로 즉위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 진평왕의 뜻과 그녀를 지지하고 추대한 세력들 정치적 승리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리하여 신라 최

초의 여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선덕여왕의 즉위는 왕위의 부자계승원칙을 행하였으나, 즉 아들의 의한 남계계승에서 벗어난 여자계승의 특수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뒤이은 제28대 진덕여왕의 즉위와, 특히 뒷날 제51대 진성여왕의 즉위에 결정적 사례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강영경, 『신라 선덕여왕의 지기삼사에 대한 일고찰』, 『원우논총』 8, 1990.
 강영경, 『울주 천진리서석 명문을 통해 본 신라왕실의 초기불교정책』, 『한국암각화연구』 18, 2014.
 김덕원, 『김용춘의 생애와 활동』, 『명지사론』 11·12합집, 2000.
 김덕원, 『신라 중고 정치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김선주,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2009.
 김영하, 『신라 중고기의 정치과정시론』, 『태동고전연구』 4, 1988.
 김창겸,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와 왕위계승 연구』, 『신라사학보』 30, 2014.
 김창겸, 『신라시대 태자제도의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13, 1993.
 김창겸,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김태식,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신라사학보』 30, 2014.
 박남수, 『울주 천진리 서석명에 나타난 진흥왕의 왕위계승과 입종갈문왕』, 『한국사연구』 141, 2008.
 신종원, 『선덕여왕에 얽힌 소문의 진실』,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신형식,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이기동, 『신라 내물왕계의 혈연의식』, 『역사학보』 53, 1972.
 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이기백, 『신라시대의 갈문왕』, 『역사학보』 58, 1973 :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이정숙,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혜안, 2012.
 이종욱, 『신라 상대 왕위계승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이종욱, 『신라골품제연구』, 일조각, 1999.
 이희관, 『신라 상대 지증왕계의 왕위계승과 박씨왕비족』, 『동아연구』 20, 1990.
 정용숙, 『신라 선덕왕대의 정국동향과 비담의 난』,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1994.
 정용숙, 『신라의 여왕들』,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후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총』 20, 1993.
 후보돈, 『비담의 난과 선덕왕대 정치운영』,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1994.

국문초록

이 글에서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의 왕위계승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는 혈통, 골품,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다. 역사 기록에는 선덕여왕의 즉위와 관련하여 이 세 조건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은 제26대 진평왕의 딸이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의 즉위는 혈연상으로는 정상적인 왕위계승이다. 그러나 신라는 중고기에 이르면 이미 왕위의 부자계승과 태자제에 의해 남자계승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딸이라는 혈연적 요건을 가졌으나 여자라는 문제 때문에 그녀가 즉위하기에는 반발도 있었다. 이에 선덕여왕이 성골이라는 신분을 절대 명분으로 강조되었고, 이에 더해 지지세력들의 추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즉위하였다.

그 결과 신라 최초의 여왕이 등장하였다. 결국 선덕여왕의 즉위는 왕위의 부자계승원칙을 행하였으나, 아들에 의한 남계계승에서 벗어난 여자계승의 특수한 현상이다. 이것은 뒤이은 제28대 진덕여왕의 즉위와, 특히 제51대 진성여왕의 즉위에 결정적 사례로 작용하였다.

Abstract

Succession to the Throne of Queen Seondeok in Silla

Kim Chang Kyum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Queen Seondeok(善德女王) in Silla. The most fundamental factors affecting the royal succession were the pedigree and the Golpum(骨品), as well as political factors. These all three conditions are mentioned in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accession to the throne of Queen Seondeok.

The 27th ruler Queen Seondeok was the daughter of the 26th ruler King Jinpyeong(眞平王). Therefore her accession to the throne was a natural succession guaranteed by the blood ties. However, in the medieval period of Silla, according to already existent the father to son succession and the crown prince system, normally the son was chosen the successor. Queen Seondeok, as a daughter of King Jinpyeong, met the kinship requirement; yet her accession to the throne was opposed as she was a woman. Therefore Queen Seondeok's claim to the throne was justified by Seonggol rank(聖骨), but the most crucial was the power of her supporters.

As a result she was chosen the first female ruler in Silla. Her accession to the throne was an unique phenomenon - guaranteed by the father to child succession rule exempted from the male lineage limitation. Apart from this case, there are other important examples of female accession to the throne as the 28th ruler Queen Jindeok(眞德女王) and 51st ruler Queen Jinseong(眞聖女王) of Silla.

Key words : Queen Seondeok,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Seonggol, female accession to the throne, father to son succession
--

투고일 : 2015. 7. 10. 심사완료일 : 2015. 8. 3. 게재확정일 : 2015. 8. 6.
--